

한국불교 아프리카 첫 대학 문열다

전국 사찰·불자성원 결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주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개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일
새로운 희망의 빛 전하는 곳”

한국불교가 아프리카에 처음 세우는 학교,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최대도시인 다르에스살람 주 키카보미 무와송가 마을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Borigaram Agriculture Technical College) 개교식을 열었다. 2013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후 정확히 3년 만이다.

개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년스님,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 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등 70여 명의 조계종 대표단이 참석했다. 탄자니아에서도 송금영 탄자니아 주재 대사, 울레 나샤 탄자니아 농업부 차관, 폴 마콘다 다르에스살람 주지사 등이 참석해 개교를 축하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들어선 곳은 다르에스살람에서 30km 떨어진 데메게 군 체케니 무와송가 마을. 대지 10만9821㎡(3만3200평), 연건평 1132㎡(342평)부지에 교실 6개동과 도서관, 기숙사, 강당, 원예 수업용 텃밭 등 시설을 갖춘 등을 갖췄다. 이날 울레 나샤 탄자니아 농업부 차관, 폴 마콘다 다르에스살람 주지사 등이 참석해 개교를 축하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인종과 국적,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중단의 강한 의지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불교 불모지 아프리카에 한국불교자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종단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처음 건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지난 5일(현지시각) 문을 열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학생대표의 첫 입학증서 수여 기념촬영.

비를 알리고 빈곤의 고리를 끊을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가 강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일깨우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행복과 불행은 인종과 종교, 태어난 국가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인 나의 말과 행위, 인연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리’는 부처님의 지혜이고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말로 ‘보리가람’은 참된 깨달음과 지혜를 실천하는 도량,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라는 뜻이 담겼다”며 “이러한 가르침이 담긴 ‘보리가람’에서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희망을 만들어가길, 스스로의 즐거움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밝은 날을 열어갈 수 있



도록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울레 나샤 탄자니아 농업부 차관은 “같은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 그리고 그 곳을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학교를 세워줘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 농업 전

문인재 육성이 절실한 탄자니아에서 정부조차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인력난을 위해 농업전문 학교를 세워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송금영 대사 또한 “보리가람이 들어옴으로써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전기가 생기고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게 됐다”며 “보리가람이 탄자니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는 곳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을 연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탄자니아 정식 학기가 시작되는 9월 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간다. 매년 6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선발, 과수·채소·화훼 등 원예 분야 특성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농업 전문 인재를 배출해나갈 계획이다.

▶차호 상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서울시, 105층 건축계획 승인...조계종 “모든 조치 취할 것”

(옛 봉은사 터 현대차 부지)

옛 한전부지를 환수하려는 조계종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 문화재영향평가 등을 요구해 온 조계종단과 봉은사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가결했다. 현대차부지 내 건축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부 도시계획시설의 확장, 105층 규모의 사옥 건축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계획은 현대차그룹의 사옥뿐만 아니라 전사·컨벤션 및 공연장, 호텔 등 총 5개동으로 구성하고, 현대차그룹 사옥 타워 최상 2개층에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현대차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조7400억원의 공공개발기금용을 활용한 기반시설 12개 사업과 8개의 후보사업도 결정됐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

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중심 체계 구축, 교통인프라 확충, 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한강 위터프론트 조성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같은 계획이 확정되자 조계종은 종단과 봉은사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다.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던 총무원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보류했으나, 보다 강도 높게 현대차그룹 사옥 건립 반대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부지환수위 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문화재영향평가를 비롯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현대차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에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종단과 봉은사는 현대차그룹 사옥 건축사업을 비롯한 이 지역의 개발사업이 줄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할당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2조계종사무처)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추석 템플스테이 어디로 갈까... 5면

바람
햇살
기다림

몸에 좋은 음식은
맘에도 좋습니다

사찰음식

www.koreatemplefood.com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Korean Buddhist Cultural Corps of Korea Buddhist

템플스테이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문의 : 02-733-4650